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다 보면 세 번째 종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동료들에 비하면 겨우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괜히 서운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 받은 돈으로 손실을 낸 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 원금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혹독한 말을 듣는다. "아니, 원금 보존이라도 한 게 어디인데 이게 악할 일일까?" 하고 억울할 법도 하다. 하지만 이 종이 주인을 향해 던진 핑계를 들어보면 진짜 악의 본색이 드러난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사업 수익률 때문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왜곡과 삐뚤어진 피해의식 때문이었다. 주인은 인색하지 않고 일을 맡길 만큼 종을 믿었는데, 이 종은 혼자 머리를 굴려 주인을 지독한 구두쇠와 악덕 주인으로 낙인을 찍어 버린 것이다.

사실 당시 '1달란트'는 노동자의 16~20년 치 연봉(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엄청난 자본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난 겨우 이것밖에 안 줬어", "실패하면 어차피 나만 혼나겠지" 하는 부정적 오해와 근거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시작조차 안 하고 핑계만 댄 결과다.

우리 모습은 어떨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수한 재능과 삶의 조건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보다, 남과 비교하며 "내 팔자야, 하느님은 왜 나한테만 인색하실까?" 하고 가슴을 졸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왜곡된 두려움은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가능성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주인은 사실 다섯 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또 두 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똑같이 대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인이 본 것은 '얼마나 많은 실적을 냈느냐' 가 아니라 '나를 믿고 거저 맡겨준 주인에 대한 신뢰와 성실함이었다. 거저 받은 은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애쓴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이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루하루 똑같이 째깍째깍 보내는 시계의 시간은 그리스어로 '크로노스(Chronos)'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기약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말한다. 하지만 예고 없이 주인이 당도하여 내 인생을 쵸종 결산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카이로스(Kairos)'다. 어둠 속의 사람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적당히 즐기고 살자"며 크로노스의 시간에 취해 멍하니 잠들어 버린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오늘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결정적 카이로스의 순간을 준비하는 시점임을 알기에 깨어 있다.

그렇다면 그 알 수 없는 시각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할까? 오늘 제1독서 잠언은 '훌륭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겉모습을 꾸미는 허례허식이나 일시적인 우아함에 목매지 않고,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신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의 소문과 주변의 조건에 마구 흔들리며 불평하는 대신, 내게 주어진 몫을 군소리 없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삶! 이것이 바로 일상의 '크로노스'를 은총의 '카이로스'로 바꿔내는 거룩한 지혜가 된다.

주인은 꼭 오시며, 그것도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던 수천 일 치의 연봉, 즉 '사랑할 능력', '말할 수 있는 입', '움직일 수 있는 손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위대한 달란트를 셈하실 것이다. 내 삶의 조건을 탓하고 남을 의심하며 마음의 장터에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너무나 가까워졌다. 하느님이 나를 모진 분이 아니라,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거금의 재산을 선뜻 쥐여 주신 인자한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확신하자.

이번 주도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용기 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불현듯 다가올 그 '카이로스'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싸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이 완벽한 기쁨을 나누어라."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11/ 15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박유자(요안나)
	황정순(크리스틴)	최경애(아가다)	김 클로틸다		김소원(사라)
26 년 11/ 22	박은미(안젤라)	김양균(아네스)	최경애(아가다)		김화룡(수산나)
	정형식(저스틴)	이향례(자넷)	임기홍(스테파노)		김영자(마리안나)

공 동 체 소 식

◎반모임일정 안내
▸플라스키아파트: 11 월 21 일(토) 오전 11 시 신관 1 호
▸4 구역 1 반: 11 월 21 일(토)오후 5 시 이현주(루시아)댁
▸4 구역 5 반: 11 월 21 일(토)오후 2 시 정세실리아댁
▸8 구역 1 반: 11 월 15 일(일)오후 6 시 서영일형제댁
640 Mchenry Rd. Unit106 Wheeling IL
▸8 구역 2 반: 11 월 20 일(금) 오후 4 시 김종루 형제댁

◎ 추수감사절 사랑의 터키 나눔
추수 감사절을 맞아 11월 22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터키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 환영합니다)

◎26 년 본당 송년파티
26 년도 본당 송년파티를 밴드를 초청하여 개최 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 년 11 월 29 일 오후 4:00 – 9:00
▸장소: Lone Tree Manor Banquet Hall
▸참가비: $50.00/1 인당
▸참가신청: 활동분과장 혹은 활동 각 단체장
※※ 행사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는 신청 시 납부를 부탁드리고, 공연 참가팀도 미리 신청바랍니다.

◎위령 성월 연령회 연도
위령 성월을 맞아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11 월 29 일 9 시 미사 후 대성당에서 모든 연령들을 위한 연도가 봉헌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봉성체 안내
11 월 27 일(금) 환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수녀님 혹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울뜨레아
▸일시: 11 월 15 일 10 시 30 분 - 신관 1 호

◎꼬미시움
▸일시: 11 월 15 일 12 시 30 분 - 신관 1 호

◎ 빈첸시오 기빙트리
가난하고 소외된 홈레스센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겨울 용품으로 돕고자 자선후원회비를 친교실에서 11 월 22 일~12 월 20 일까지 접수합니다.

◎성경 필사
신, 구약 성경 중 읽고, 쓰며, 묵상하고 싶은 말씀 한권을 선택, 필사해서 12 월 13 일까지 제출하시면 본당 사랑의 구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정종하(가롤로), 주영재(요한), 김헌관(이냐시오), 박마리아, 김형민(프란치스코), 조현정(에스더), 한명수(아오스딩마리아), 고광혁(토마스), 김용섭(바오로), 이순영(젬마), 정인선(요한), 김정욱(에스더), 정행자(세실리아), 박순연(마리아), 홍현(야고보), 이태식(요한), 허복님(율리안나), 허관(스테파노), 강정자(수산나), 정영옥(모니카), 김영덕(그레고리오), 김문갑(마르꼬), 정형식(저스틴), 박진우(마이클), 주옥미(데레사), 박종헌(야고보)

○교무금	$ 7,570.00	○주일헌금	$ 1,555.00
○토요, 영어미사	$ 275.00	○감사헌금	$ 500.00
○9일기도봉헌	$ 2,490.00		

▪감사헌금:
김영덕(그레고리오), 함순희(율리안나), 박순연(마리아)

『 2026년 11월 15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서영주

■ 연미사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이옥수(다두),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백승재(야고보),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조문기(사스땅야고보), 김순열(카타리나), 이동준(베드로), 이선애(마틸다), 임영일(바오로), 김희왕(스테파노),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김영숙(데레사), 정금주(요한), 진복남(아우구스티노), 은총의 모후단원들

11월 17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꿀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승재(야고보), 백용길(그레고리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11월 18일(수) ~ 11월 21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11월 18일(수): 윌리엄 버지스 **(연미사)**

11월 19일(목): 김희왕(스테파노) **(연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파트너스 부동산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라저스팍 꽃집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정통 한정식 전문점
반 포 정
전곡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최 젬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BAIRD & WARNER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냉면이라면 조선옥 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백이도 역시
조선옥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자동차정비와 바디에 관한모든것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go, IL 60614
312.929.9068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일):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일):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일):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 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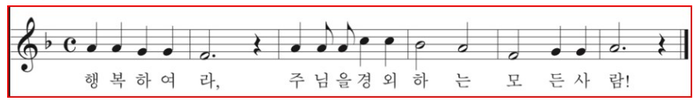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11 월 15 일 연중 제 33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복음 마태오 25,14-30

◉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8	봉헌성가	41
성체성가	436	파견성가	65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